

봄나들이즐기러 전북으로

도,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여행주간 지정 여행비 할인 혜택 · 이벤트 등 프로그램 다채 전주국제영화제 등 축제 도내 곳곳서 펼쳐

계절의 여왕 봄이 찾아왔다. 본격적인 나들이의 계절이다. 이에 맞춰 전북도에는 다채로운 축제와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봄 여행주간'으로 지정하고 여행경비 할인 혜택과 이벤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번 봄 여행주간 동안 지역의 관광관객들을 활용한 대표프로그램 운영과 시군축제 및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주요 관광지의 음식·숙박업 등 특별한 혜택 제공, 친절·청결 등 손님 맞이 환대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이 분야별로 중점 추진 될 계획이다.

올 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축제는 군산 근대문화거리에서 펼쳐질 '근대 골목길 festival'이다.

오는 5월8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펼쳐지는 이 행사에는 근대 골목길 놀이체험과 미션수행, 길거리 공연, 먹거리 체험 등의 즐길거리와 먹거리로 근대문화거리의 역사·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군산 월명동 일대에서 펼쳐질 이 행사에는 동국사, 고구당, 신흥동 일본식 가옥, 경

동동 철길마을, 초원사관 등 5개소에서 구경별 서커스, 미술 등의 문화공연을 볼 수 있다. 고창에서는 '고창정보리발 축제'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고창정보리발 축제'는 고창군 공음면 확원관광농장 일대에 30여만명의 드넓은 보리밭이 관광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전주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전주국제영화제가 진행된다. 내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인생 전반에 걸친 성과와 몰락의 음악(재즈)을 통해 승화하는 내용의 '본 투비 블루'를 개막작으로 시작해 이달 29일과 30일 5월4일 등은 '비드나잇 인 시네마'라는 명칭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영화 3편을 상영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부안에서는 부안미실축제(5월8일~8일)가 열린다. '미실'로 표현되는 부안의 푸근한 인심과 정을 부안인의 아름다운 산, 들, 바다와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축제는 최근 박은순 서울시장이 축제 홍보물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어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또한 정읍 황토현동농민역량(5월7일~8일)과 남원 춘향제(5월13일~16일)등도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도내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지역특화 관광지와 연계된 각종 이벤트도 펼쳐진다.

주요 이벤트로는 전주한옥마을에서 '함복입고 스탬프투어'와 '함복입고 사진찍기 콘테스트', '무주 애빠지다 스탬프 투어', '순창짜Go 선물받Go' 등 40여개의 이벤트는 관광객들을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한다.

이번 전북도 행사 중에는 총 120여개의 할인업체가 참여할 계획으로 공공운영시설의 입장료와 숙박업소, 음식점, 소형, 체험 등 6개 분야에서 1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행주간 사이트(할인업체 등)(<http://spring.visitkorea.or.kr/>)와 전북도 문화관광정보(<http://tour.jb.go.kr/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국관광공사전북지사, 전라북도관광협회, 14개 시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축제, 다양한 이벤트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전북관광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장애인의 날 기념식 20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김원경(사)전북도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및 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 관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행사를 가졌다. (권연기 기자 4면)

반가운 잦은 비... 도내 용수공급 '걱정없다'

지나해 늦가을부터 올 봄까지 많은 양 내리 이달 저수지 평균 저수율 81.7% 수준으로 회복

지난 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우려됐던 전북도내 용수 공급이 당분간 무리없이 운용될 전망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4월 현재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1.7%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는 지난해 늦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또한 도가 가뭄대비 용수원 개발과 관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금상첨화로 20일 저녁부터 내린 비는 20~60mm 정도로 봄비치고는 적지 않은 양이 내려 도민들의 가뭄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현재 도내 농업용저수지의 총 저수량은 5억6,100만톤 정도인 것으로 알

려졌다. 특히 도내 저수지 중 가장 큰 용량인 삼진 저수지의 경우 85.8%의 높은 저수율을 기록했다. 대이수계 저수자인 대야·경천·풍상 저수지의 경우 평균 62% 정도의 저수율을 기록해 도내 저수지 중에는 가장 낮은 편이나 현재 추세로는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수 동화 부안 청호 완주 구이, 고창 저수지 등은 최소 70%에서 100%의 넉넉한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지난해부터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시·군 합동으로 관정개발(204개소)과 저수지준설(22개소) 등 총 441개소를 선

정해 용수확보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들은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 번달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어서 도내 농민들의 힘을 북돋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거울삼아 제한적인 모래담수화 하천유지용수 방류 최소화 등 확보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현재 5억6100만톤(저수율 81.7%) 가량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어 올해 이 양기 용수공급은 물론 기상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7월 중순까지는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극심했던 가뭄을 경험삼아 물 아껴쓰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모든 부처 입법예고 검색 한곳에서"

통합입법예고센터 오늘 개통

앞으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통합입법예고 검색하면 모든 부처의 입법예고 법령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댓글을 달면 해당 부처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해 언제 어디서나 법령에 대한 의견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

다. 법제처는 20일 모든 부처의 입법예고 상황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댓글만 달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가 오는 2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입법예고 상황을 조

회하려면 해당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를 조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기준에 제공되던 입법 정보 외에도 법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한 조문 대비표를 비롯해 제·개정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등 설명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주 기자

한·일 국장급 협의개최 위안부 재단 설립 등 논의

한국과 일본은 2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이날 협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일본 측 수석대표로는 이시카게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참석했다. 이시카게 국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차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이다.

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해 12.28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이성주 기자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에만 구조조정 집중

전자·디스플레이 제외

정부가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에만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전자와 디스플레이 부문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방침은 다음주에 예정된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20일 각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금융위원회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구조조정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취약업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융감

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본회의의 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5개 업종 외에 추가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부실 업종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지난해 실시한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저유가 영향 등을 고려해 전자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지만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는 "신용평가 결과에서 전자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협력 업체들 중 C나 D등급을 받은 곳이 있어서 전체 산업까지 점검해 봤다"며 "결과적으로 두 업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 · 시낭송 · 면접 · 웃음치료 · 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 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명운행 (유치부, 초등부)함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겸임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음반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컨설턴트
· 저서: "35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만 말' 스피치 노하우" 등

※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반인협회, (사)한국음반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